

1453개 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최대 2억 포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
최근 5년내 발생한 모든 채용비리
신분 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만전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벌인다. 추진단은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 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권익위가 신고를 접

수해 처리된 사건을 예시로 내놓았다.

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인 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그의 이력에 맞춰 채용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지

시했다.

C대학 총장은 면접관에게 자신의 지인이 추천한 응시생을 선발하라고 청탁했고, D대학 간부는 필수자격요건에 미달한 지인을 위해 우대요건을 바꾸고 경력점수까지 조작해 채용했다.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등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계획'부터 취합하고, 채용비리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한다.

추진단은 채용 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

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한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이밖에 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 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4일 오전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에서 개최된 '캠코 희망울림 FC' 2기 어린이축구단 리그전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가운데)이 참가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캠코 '희망울림 FC' 2기 어린이축구단 리그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오전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에서 '캠코 희망울림 FC' 2기 어린이축구단 리그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캠코 희망울림 FC는 지난해부터 부산 지역 어린이들의 축구 활동을 돕기 위해 캠코와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이 협업해 창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축구단이다.

올해 2기는 총 6개 초등학교에서 140명이 참여해 지난 4월 발대식을 가졌다.

캠코는 2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복 등 축구용품 일체를 지원하고 부산아이파크 전문 코칭스태프와 프로선수들이 참여

하는 주 1회 축구교실과 여름방학 축구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이날 리그전은 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축구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하고 학교별 MVP 선수도 선정했다.

특히 캠코는 이번 2기부터 해외연수 기회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해 리그전에서 선정된 각 학교별 MVP 선수를 비롯해 축구에 대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총 12명의 학생에게 일본 프로축구 리그 견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대구권역 中企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근로복지공단-대구광역시

근로복지공단은 5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구지역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3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등 재정지원과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중 중소기업 부담분을 지원하고, 부지(건물) 제공 노력

과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또한 대구상공회의소는 참여사업장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협약까지 포함해 2014년부터 9개 광역시·도와 지자체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설치비 등 기업 부담금 해소와 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 양육과 조처출산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3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구지역의 일·가정 양립, 출산율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차별없는 일터 만든다'... 고용차별 캠페인 전개

노사발전재단

교육 열고 지역사회사무소 예방 캠페인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제2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을 맞아 고용차별예방 워크숍 및 인사담당자 교육, 차별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단 서울사무소는 이달 9일 서울 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과 개선'을 주제로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인사노무관리자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한전, 전력그룹사 이전지역과 상생

'농수축산물 박람회' 개최

한국전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력그룹사 이전지역 농수축산물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지자체, 사회적경제

특히, 이번 교육은 중앙노동위원회 변성영 전문위원이 차별시정 제도와 차별시정 판정사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서울사무소의 차별진단사례 공유를 통해 차별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사무소는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고용노동지청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릴레이 '고용차별 예방 강조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

6일에는 보령고용노동지청과 서산 중앙호수공원 일대에서, 9일에는 청주고용노동지청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

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경인사무소는 6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쌍용테크노파크 단지에서, 8일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고용차별없는부천시(용인시) 만들기 공공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2회차를 맞은 고용차별 강조주간 활동이 시민들에게 지원단의 사업을 더욱 잘 알리고 호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aT, 카자흐스탄서 韓 농식품 선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하는 식품박람회 '카자흐스탄국제식품박람회(World Food Kazakhstan 2018)'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21회째 개최되며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바이어들의 참여도가 높으며 아시아권 바이어도 다수 참여하는 박람회이다. 작년 기준 36개국 456개 업체가 참가했고, 5300여명이 내방했다.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 중 러시아를 잇는 제2의 경제국이자 다량의 지하자원을 보유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카자흐스탄국제식품박람회 모습. /aT

aT는 이번 박람회에 홍삼제품, 알로에 음료, 유자차, 고추가공품 등의 수출 농식품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11개 국내 수출업체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홍삼 등 우체국쇼핑 상품 알리바바·아마존서 판매된다

김, 홍삼 등 우체국쇼핑 상품이 알리바바와 아마존에서 판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쇼핑 10개 상품이 알리바바는 광군제인 11일부터,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 일주일 전인 16일부터 판매된다고 5일 밝혔다.

상품 판매는 해외배송이 가능하고 통관·검역 상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됐다. 현지 선호도가 높은 김, 홍삼제품, 마유비누, 키즈마스크 등 10가지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쇼핑 상품의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추진해 왔다. /김나인 기자 silkni@